작가가 두 명인 신소설, 『치악산』

흔히 『치악산』은 이인직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, 엄밀하게 말하면 이 작품의 저자는 두 명이다. 이 작품은 상하 2부로 이루어져 있는데, 상편의 작가가 이인직, 하편의 작가가 김교제이기 때문이다. 어떤 이유로 두 명이 썼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지만, 우리나라 최초의 공동 창작 작품이라 할 수 있다. 하편을 쓴 김교제는 이인직만큼 잘 알려진 작가는 아니지만, 많은 작품을 남긴 근대계몽기를 대표하는 소설가이다. 특히 『비행선』(1912)과 『일만구천방』(1913) 등 오늘날로 치면 SF소설을 주로 번안한 작가이다.

『치악산』은 못된 시어머니와 시누이로 인해 큰 고생을 하는 착한 며느리의 고생담이다. 결말에는 악한 인물도 모두 회개하여 새사람이 되고, 착한 인물인 며느리도 그 동안의 고난이 모두 해결되어 집안 모두가 화목하게 잘 산다는,

‘권선징악’을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가정소설 유형에 속하는 작품이다. 이러한 ‘악고현부(惡姑賢婦)’형 소설은 고대소설의 흔한 패턴이지만, 작품이 창작된 시기가 시기인 만큼, 이 작품 안에는 외국유학으로 상징되는 신교육에 대한 강조와 미신타파, 신분제의 모순 등 전통적 왕조 체제가 붕괴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당시 현실의 시대적 과제가 전면에 드러나 있는 문제적 작품이다.

한국근대문학관에서는 1934년에 발행된 상하합본을 소장하고 있는데, 상하편이 한 권으로 묶였다는 점과 울긋불긋한 표지의 딱지본으로 발행되었다는 점, 1930년대까지 꾸준히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,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.

글/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 학예사 함태영